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자    제목: 부자의 사명    성경: 마태복음 19장 16-26절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16-26)

오늘은 추수감사절.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참으로 복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홍수나 침수 피해가 나지 않았다. 예년 같았으면 얼마나 침수피해가 많았

겠나?

오래도록 장마가 계속되었으나 여름이 한달간 연장되어 과일들의 맛이 들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자연재해는 없고, 햇빛은 모조리 받았으니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아멘.

미국이니, 그리스니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하니 크신 은혜일 뿐 아니라, 영적리더로서 우뚝 솟아야 하는 계시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증해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휘청거렸고, 올해 또 그리스 디폴트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긴장감 속에 지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위기가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경제 이야기를 할 터인데 특히 국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난 주 복습)돈은 신용이다. 그래서 신용이 없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용이 가짜라면 그 신용에 기초한 돈은 위험하다.

돈은 편리하지만, 내 몸 편리한데만 돈을 사용하고, 일 하는데 편리하도록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돈은 금방 바닥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은 대단히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월가와 그리스의 정부는 이 원리를 과소평가 한 것 같다.

왜 그랬을까? 돈에 대한 정확한 사명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겠나.

월가는 없는 신용을 교묘하게 만들어냈다. 서브프라임이란 신용이 썩 좋지 않은 주택담보 대출이다.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스페인계 노동자들이 집을 사들이면서 받은 대출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 대출을 이용해서 채권을 만들었는데, 부실한 것과 튼실한 것을 섞는 기법

을 통해서 우량채권으로 둔갑 시켰다. 또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해서 보험까지 들어 두었다. 한마디로 전혀 신용이 없는 돈을 신용등급 최고 등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였던 것이다. 모든 연금술사가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나듯이 이들의 신용 거품도 곧 들통이 났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고, 약 600만채 이상의 집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 신용이 없는 돈은 거품이 되었고, 결국 그 책임을 떠안은 나라는 가난해지게 되었다. 서브프라임을 토대로 만들어진 상품 CDO는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도 상당 수 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월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군중들은 무엇보다 금융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격분했기 때문이다.

신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돈은 위험하다.

그리스 국가 부도는 갚을 길이 없는데도 계속 빚만 지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나는 경우다. 이들은 돈을 자신들이 편리한데만 사용했지, 돈으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경제를 위해서는 돈만큼 편리한 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미국식 신용제도를 비판하는데, 연방준비제도식 금융시스템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훌륭한 제도나 장치가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킨다.

되도록 문제가 최소화 하는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제도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것도 중요하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도 잘 발달한 교통 수단이지만, 이제는 청정에너지로 옮겨가야 한다. 자동차를 없애기 보다는 음주운전자를 잡아야 하고,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식 금융시스템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기초가 되었

다. 막연히 심리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다.

만드시 해는 떠 오를 것이고, 식물을 자랄 것이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부가 쌓이게 된다.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물이 방치된다면 곧 부패되고 만다. 만약 이것을 운반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산물의 가치는 몇 곱절 불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산업이 활기를 띠는 것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하고 재물은 더 많이 쌓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열곱의 돈이 생산된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돈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경제는 미래 지향적이다. 부모가 미래를 보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아이는 훨씬 더 가난하게 되고 부모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신용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금융제도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투기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거짓 신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편리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이 원리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하루살이가 되어서는 안되고, 경제가 튼튼한 실물경제에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며 위기에 싸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돈에 대한 사명이 부족해서이다.

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사명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돈을 쌓는데 그 사명이 있는게 아니라, 신용을 쌓는데 그 사

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로비 자금이나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해져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인데, 그렇게 쌓아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창고는 비워져야 내년에 다시 새로운 곡식으로 가득차게 된다.

그는 재물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가난을 퇴치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도로를 넓히고, 교육을 개선하고, 악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생활을 편리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매년 조금씩만 노력해도 세상은 금세 행복한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게으르고 죄만 짓고, 거짓말하고, 불평만 많느냐고 말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더 선한 것을 선택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쏟아 붓는 것이 부자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속물처럼 돈 욕심만 부리며 자기 편리한대로만 돈을 사용하라고 보내시지 않으셨다.

부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돈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하라고 보내셨다.

돈 있다고 거만하지 말고, 세상 우습게 여기지 말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려면 자신이 어떻게 희생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자 청년은 영똥한 고민에 빠지지 말고 이런 고민에 빠져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10명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